

禪墨一如 정신 담아 지구촌 어린이에게 자비를...

〈선목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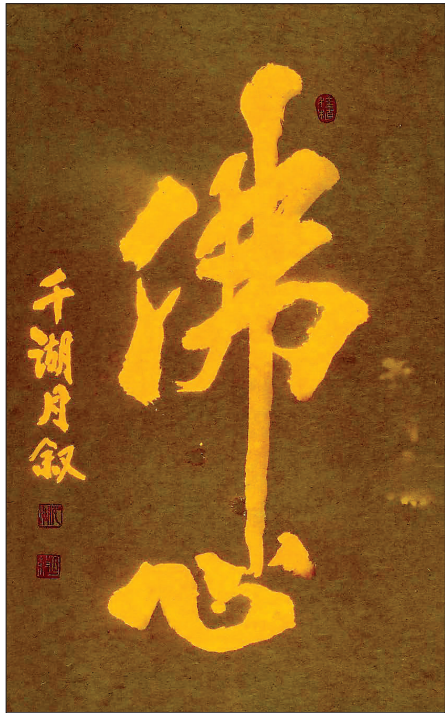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을 위한 월서 스님 서예전



벗길 것을 강조한다. "육신의 때를 벗기는 곳이 목욕탕이라면 마음의 때를 벗기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절을 찾는 것은 바로 스스로 마음에 묻은 때를 씻기 위해서죠. 아무리 현명하다, 지식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에 때가 끼면 안개처럼 낀 듯해 참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참 마음을 깨치고 본마음을 항상 여여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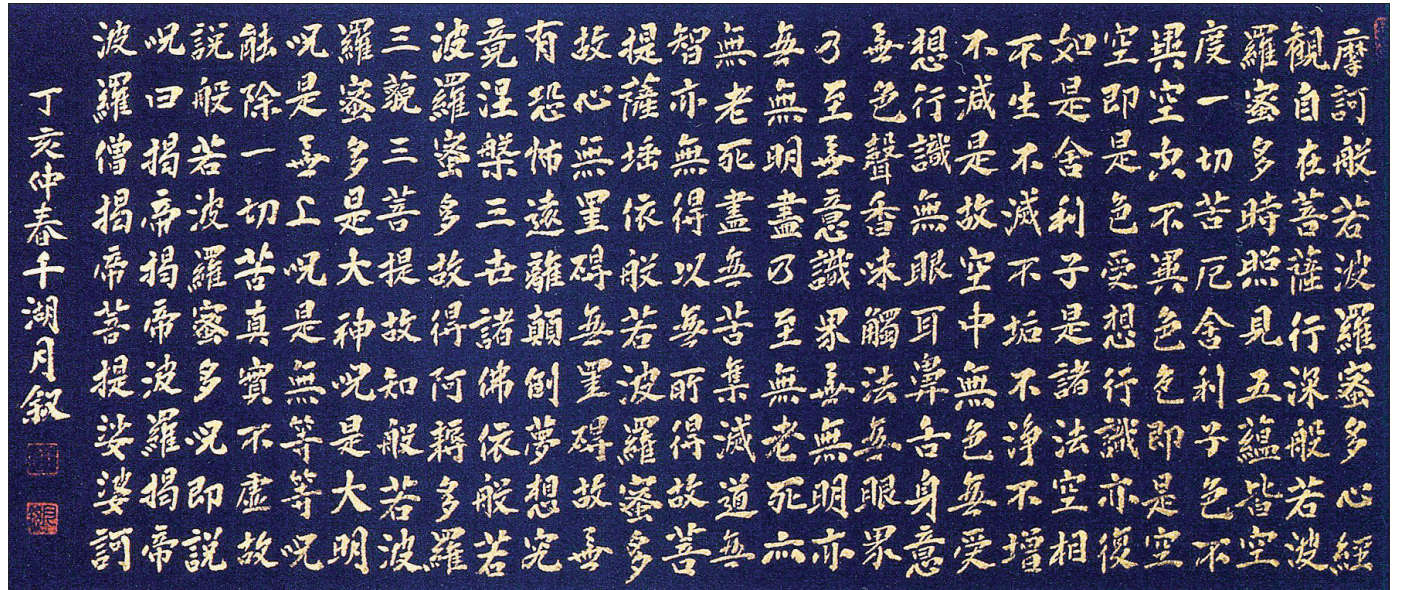
또한 웅혼한 필치의 금강경, 화엄경약찬게, 반야심경 등 경전 작품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 자라도 틀리면 다시 작업해야 했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스님은 서예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선목일여(禪墨一如)라고 했습니다. '선' 수행은 고요함이고 지혜의 빛이죠. '묵'에 임할 때는 번뇌 망상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선목은 하나인 것입니다. 선과 서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행과 연습에 고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고비 고비마다 뛰어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야 비로소 맑고 고요함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월서 스님은 서예를 하면서 임시(臨書)에 매진했다. 여러 사람의 글씨를 보고 배우면서 그 본체를 알고, 자신의 필체를 완성해 나간 것이다. 특히, 스님의 글씨에는 추사의 기상이 서려 있다고 평가받는다. 서예가 구당 여월구 선생은 "스님은 추사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힘찬 종획, 단호하면서



월서 스님 작 '佛心'

선지식들의 오도송·열반송·경전 등 혼신 다한 서예작품 400여 점 전시
구산·범룡 스님의 작품도 공개
한국미술관서 4월 29일~5월 5일



월서 스님 서예전이 4월 29일~5월 5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다. 동남아 오지 학교건립을 위한 이번 전시에서는 400여 작품이 선보인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도 절도 있는 전철(轉折), 힘찬 글씨의 근본이 되는 역입(逆入) 등 스님의 작품에서 강철 같은 골기를 느낄 수 있으며 무한한 품격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스님의 글씨를 통해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작들은 다양한 색지, 문양지에 작업해 강렬하면서도 이색적인 느낌을 주며 청·녹·금·은 등의 색채가 다채롭게 구사되었다. 올해 세수 82세에 이른 스님은 육신이 허락하는 날까지 공덕을 베풀겠다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어쩌면 이번 전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동남아 오지 교육불사의 대업을 위한

작품전시라는 측면에서 정신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죠." 이밖에도 큰스님들의 작품과 유명 화가와 서예가 등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스님이 소장해오던 서암 스님, 벽안 스님, 구산 스님, 월하 스님, 청하 스님, 일타 스님, 범룡 스님, 김창환 등의 작품 27점의 작품들이 공개된다. 한편, 월서 스님은 경주 분황사 주지를 역임했고 1974년부터 제4~8대·10대·12대 중앙 종회의원을 지냈다. 제8대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 등을 거쳐, 1999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직할교구 불교사 주지를 맡고 있다. 2007년 대한불교 조계종 원

로회의 원로의원에 선출되었고, 2008년 해인사에서 조계종 최고 품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특히, 국제구호 봉사단체인 '천호월서희망재단'을 창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등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학교를 건립하고 교육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 운동 등도 전개하고 있다. 2007년 '북한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돕기'를 주제로 '선목일여'를 열었으며,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 수익금은 미얀마 바간 인근의 학교 건립에 쓰여질 예정이다. (02)720-116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고 모두가 동행자임을 기억하세요”

불교TV, 4월 3일 개국 20주년 기념 정목스님 '나무아래...' 대구 공개방송 인기



"당신의 인생길을 함께 걷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가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는지요? 법을 함께 구하는 벗을 도반이라 하듯 인생의 거친 길을 함께 걷는 소중한 반역자가 있다면 삶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우리,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당신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겠습니다."

함께 걷는 세상이 아름다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공개방송은 대구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푸른방송(대표 조강래) 창사 21주년을 겸해 열렸으며, 대구·경북 지역 시민과 불자 1500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BTN은 올해 20주년을 맞아 정목 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를 서울 부산 대구 대서부대중 1500여 명 참석 성황 '동행' 의미 일깨우며 佛心 사로잡아 4월 23일 '배려' 주제로 대전 찾아 전 4대 도시 투어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 동참한 불자들은 연주자 오리엔탈고의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정목 스님의 감동적인 힐링토크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행사 시작 전 정목 스님은 "불교TV가 우

리결에 온지 20주년이 됐다 외환위기시절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며 동참한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다. 스님은 강연이 시작되자 "우리가 이미 갖춘 인생임을 모르고 힘들다 고통스럽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시민들을 위로했다. 스님은 또한 먼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결코 인생이 혼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개의 과일이 결실을 이루기까지 비바람에 시달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며 익어온 날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을 세상 모든 이가 나의 동행자임을 기억하세요." BTN 전지연 PD는 "대구지역의 유선방



BTN불교TV는 4월 3일 대구 학생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국 20주년기념 '정목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 공개방송을 개최했다.

송인 푸른방송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불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와서 더욱 풍성했던 자리였다. 정목 스님이 여색한 대구 사투리로 정감 있는 이야기를 이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주제인 '동행'에 맞춰 김성수의 노래 동행을 다 같이 부를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형성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설

명했다. 방송은 5월 7일 목요일 오전8시·오후2시이며 재방송은 5월 10일 오후 4시이다. 한편,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는 4월 23일 오후 2시 '배려'를 주제로 대전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기타리스트 권정규와 함께 네 번째 만남을 갖는다. (02)3270-3402 신성민·정혜숙 기자

히말라야 고요왕국

지구상의 마지막 상그릴라, 사자의 산 마드마 삼바바 수행지인 탁상사원

부탄 순례

행복지수 1위!

출발일 5월28일/6월19일/7월24일/8월31일

※6인 이상 매일 출발가능!!

순례가 시작되는 곳

아제여행사

AJE

☎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www.ajetour.co.kr SINCE1999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남방불교의 보고 & 인도양의 보석

아유보안 스리랑카

출발일 4월29일

하늘과 맞닿는 땅 티벳

수미산 · 구계왕국 탐방16일

출발일 5월29일

동티베트

야칭스, 오명불학원, 인경원 3대 사원

출발일 5월27일